

“중국 이커머스 활용 또는 계획 중”

중기중앙회, 국내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 대상 조사결과… 2곳 중 1곳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 이커머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이미 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국내 제조업·유통업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이커머스 국내 진출 확대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중국 이커머스를 활용 중인 기업은 23.7%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21.0%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계

획이 없다는 응답은 49.3%였다.

중소기업들이 중국 이커머스를 활용하는 주요 방법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65.2%)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중국 이커머스에서 제품을 구매해 국내에서 재판매(병행수입)”(11.2%),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6.7%) 등의 방식이 있었다.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기업(24.7%)이 “부정적”(15.3%)이라고 응답한 기업보다 많았으며, 변화 없음(60.0%)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국내외 온라인 판매 채널 다변화(47.3%)가 가장 많았고, 이어 ‘유통망 대비 입점 수수료

절감”(16.2%), 원자재 조달 및 물류 비용 절감”(14.9%)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한 소비자 이탈(45.7%)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또한 “국내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가품 유통 등)”(19.6%), “무관세·무인증으로 인한 역차별 피해”(17.4%)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서 “특별한 대응 전략 없음”(63.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확대(10.3%), 차별화된 제품 개발(프리미엄 전략”(9.0%), “가격 인하”(8.7%) 등의 전략

을 고려하고 있었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는 “중국 이커머스 입점 업체 대상 인증·검사 강화”(34.7%)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국내 이커머스 입점 기업 지원(수수료 인하 등)”(32.3%), “해외 직구 제품의 통관 및 품질 검사 강화”(26.3%), “지식재산권 침해 제재 강화”(23.0%), “물류 경쟁력 강화(물류비 지원 등)”(21.7%)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 이커머스가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품질 인증과 검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커머스 입점 및 물류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긴꼬리닭’ 풍지깃 비밀 밝혀

농진청·서울대 연구팀, 유전체 지도 완성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재래 닭 품종 ‘긴꼬리닭’의 유전체(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수컷의 풍지깃이 길게 자라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연구진은 ‘긴꼬리닭’ 수컷 1마리와 해외 닭 40품종의 유전정보를 모두 비교 분석해 범유전체 정보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긴꼬리닭’ 다염에이(DNA)에서 총 3만 6,818개 돌연변이 서열과 위치 정보를 확인했으며, 1~4번 상염색체와 제7(Z)성염색체에서 깃털 모양과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3,000건 이상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 돌연변이들이 바로 ‘긴꼬리닭’의 풍지깃이 길어지는 원인인



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로 우리 고유품종 ‘긴꼬리닭’과 전 세계 긴꼬리 품종(일본 ‘오나카드리’, 독일 ‘퍼닉스’ 등)을 비교할 국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이 해독한 유전체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됐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생명과학 학술지에 게재됐다.

/오상근기자

중기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돕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물류·마케팅·고객 서비스 등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유형은 △신규 솔루션 구축(110개 기업 선정, 최대 5천만 원 지원) △솔루션 고도화(25개 기업 선정, 최대 1억 원 지원) △공동활용 솔루션 구축(8개 과제 선정, 최대 25억 원 지원) 총 세 가지다.

특히 공동활용 솔루션 구축 부문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솔루션 공급기업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면 디지털 전환을 원하는 중소기업(도입기업)과 솔루션 구축이 가능한 기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이 지원된다. 컨설팅을 받으려면 3일부터 18일까지 수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원에 종자산업 활성화 위한 민간과의 협력 논의

농진청, 원에 분야 종자산업 발전 민간 종자·종묘 산업체 관계자 간담회

농촌진흥청은 지난 1일, 원에 분야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 종자·종묘 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종자업체 13곳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품종 개발과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소비자 수요 변화로 인해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맞춤형 품종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육종 기반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종자와 품종 개발부터 보급, 유통에 이르기까지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채소 분야의 민간 육종회사를 지원하고, 신품종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종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민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국산 품종이 국내외에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종자산업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 올해 최우수 국민제안 5건 선정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연금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63건의 국민제안 중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기여한 올해 최우수 제안 5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올해 수상자 중 한 명인 엄모 씨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불편했던 점을 제안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반영될 줄 몰랐다”며 “공단이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엄 씨는 ‘소득활동으로 금액 되는 노령연금액을 수급자가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했고

공단은 이를 반영해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 나은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것”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소리 반영함’을 통해 그동안의 제도 개선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팩스(063-900-3212)를 통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오상근기자

전기안전공사,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 전기설비 점검 총력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점검과 복구 지원에 나섰다.

전기안전공사는 산불 피해로 인해 손상된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를 무료로 점검하고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으며, 같은날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100세대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과 파손된 시설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

지원 활동은 산청군청, 전기공사협회



회, 한국전력공사와의 협력으로 진행했으며, 전기안전공사 배계섭 안전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전기안전공사

는 산불이 확산되던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이재민 대피소 132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산청군 두암마을과 하동군 청계사 등 10개 마을(44세대)의 전기시설 점검도 완료했다.

오는 3일에는 경북 영덕군 1,4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안동시와 의성군 청송군 등 다른 피해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인도 SW 개발자 채용 벤처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채용을 원하는 벤처기업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도 출신 SW 인력을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연계해 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번 달 3일부터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연계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을 포함한 우수한 SW 개발자를 국내 벤처기업과 연결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에는 총

358개 벤처기업이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41개 기업이 208명의 인도 SW 개발자를 채용했다.

이 중 201명은 인도 현지에서 원격 근무를, 5명은 국내에 입국해 근무 중이다.

올해는 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 중기부는 인도 내 채용 네트워크를 기존 2곳(노이다(뉴델리), 벵갈루루)에서 4곳(푸네, 하이데라바드 추가)으로 늘려, 인력 풀(Pool)을 기존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두 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우수한 SW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